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2, 1-12.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관련 연구 경향 분석

노 성 향*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추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대해 연구한 190편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연도별, 연구주제별, 연도와 주제를 모두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시작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9년 이후부터는 매해 평균 20편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다가 2010년(27편)과 2013년(31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연도별 연구추이는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특기적성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경향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82편(43.1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프로그램운영 및 실태조사 40편(21.05%), 프로그램개발 및 인식조사 34편(17.89%), 프로그램 만족도 18편(9.47%), 교수·학습 지도방법 16편(8.42%)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지도방법, 만족도, 프로그램운영 실태조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특기적성강사의 자격, 선발, 평가, 처우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특기적성교육, 연구경향, 방과후학교

· 논문접수: 2016. 10. 24 / 수정본접수: 2016. 11. 24 / 게재승인: 2016. 12. 17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교수

Ⅰ. 서 론

2015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49.9%로 2000년 47.0%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은 35~39세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하락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 68.6%로 가장 높다가 서서히 하락하여 35~39세에 57.3%로 가장 낮고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45~49세에 68.6%로 최고조에 이르다가 낮아지기 시작한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우리나라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는 원인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부담이라는 연구결과 때문에 정부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보육정책을 제시하여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이 40대에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 여성의 6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 노동시장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20.3%)라는 응답은 3순위로 나타났으나 30,40대의 여성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34.3%)가 가장 높은 재취업 이유로 나타났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우리나라 부모세대의 높은 자녀교육열은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 2010년 65%, 2014년 68%로 나타나 OECD 평균(41%)의 1.5배 수준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이 사회적 지위는 물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인식을 가진 부모세대의 높은 교육열이 자녀세대에 대한 교육투자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교육비[1]는 가계 경제의 많은 영역을 차지할 뿐 아니라 여성재취업의 중요한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1000원으로 나타났고(통계청,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별 가정의 양육비는 교육비(공・사교육)와 돌봄비, 의복 및 장난감 비용 등을 모두 합쳐 월 평균 12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격차는 무려 4.3배에 달했고, 특히 두 그룹은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5.1배(각각 15만8000원, 80만400원) 차이가 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부담이 자녀출산 기피로 까지 이어져(김미정・정계숙・박희경, 2010;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10; 정은희・최유석, 2013) 사교육비에 대

1)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0년에 낸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평균 72만 원이었고,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9.4%였다.

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5년 방과후 교육활동[2)]이 도입되었다. 방과후 교육 활동의 취지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4년 참여정부부터는 방과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방과후교실(초등)을 모두 포괄하여 방과후학교로 명명하고 방과후학교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는 초기에는 정규교과에 대한 보충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6,148개소의 초등학교에서 199.2만명의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6).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6).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과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제도화의 취지는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인성, 창의성 신장 및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는데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제공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의 참여를 통하여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김유림, 2014).

방과후학교 활동 중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개성과 소질개발이라는 방과후학교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2015년 현재 방과후학교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다른 교과관련 프로그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 33,878개, 미술 23,842개, 체육 39,223개, 컴퓨터관련 21,660개, 독서관련 프로그램 6,992개, 기타 41,120개로 전체 167,015개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에서 차

2) 방과후학교의 기원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월 31일에 발표한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제1차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라는 항목을 제안한 것에서 출발한다. 당시 발표된 보고서에서 '특기・적성 교육'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지하는 영역이 커지면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인 초등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변화와 참여확대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초등학생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추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경향을 연도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방과후프로그램, 초등학교 등을 검색어로 입력한 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특기적성교육을 주제로 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는 1995년 처음 사용되었지만 2004년부터 특기적성교육, 수준별보충학습, 방과후 보육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운영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2004년 이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문헌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연구 병행 등이 있었지만, 90%이상의 연구가 양적연구여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양적연구에 제한하기로 하였다.

2. 분석기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국내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기준은 선행연구(김현자・한성심, 2014; 노성향, 2004)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운영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교수・학습지도방법과 만족도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

〈표 1〉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 내용분류 기준

주제	연구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현황(음악, 체육, 미술,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	특기적성 프로그램 연구의 개발 및 프로그램 인식조사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 체육, 미술, 컴퓨터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효과, 특기적성교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또래관계, 학교적응, 인성, 공감, 자아개념, 정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교수・학습지도방법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교수법, 학습지도 방법
만족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만족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면 <표 1>과 같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특기적성프로그램 연구는 학위논문 93편, 국내학술지논문 97편 총 190편으로 이들을 연도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의 연도별 연구경향

전체적으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처음 시작되었으나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2009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20편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4~2006년 3년 동안은 특기적성과 관련된 학위논문들이 거의 없었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0편정도의 학위논문이 연구되었다. 학술지도 학위논문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 2004~2006년은 특기적성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이 한 편 뿐이지만 2007년 6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09년부터 매해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2013년 가장 많은 17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다시 평균 10여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표 2〉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 연도별 연구경향 단위: 편

연도 \ 편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학위 논문	0	0	1	5	6	9	13	12	11	14	12	10	93
학술지	0	1	0	6	1	10	14	11	13	17	13	11	97
전체	0	1	1	11	7	19	27	23	24	31	25	21	190

2.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의 주제별 연구경향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의 연구경향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82편(43.1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 40편(21.05%),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가 34편(17.89%), 프로그램 만족도가 18편(9.47%), 교수・학습 지도방법 16편(8.42%)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위논문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가 30편으로 전체 학위논문 중 32.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논문이 24편(25.81%),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 18편(19.35%), 프로그램 만족도 12편(12.90%), 교수・학습지도방법 9편(9.6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학술지는 학위논문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58편(59.8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가 16편(16.49%),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 10편(10.31%), 교수・학습 지도방법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각각 18편(9.47%)과 6편(6.19%)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 주제별 연구경향 단위: 편, %

주제 \ 구분	프로그램운영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 및 인식조사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교수・학습 지도방법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학위 논문	30(32.26)	18(19.35)	24(25.81)	9(9.68)	12(12.90)	93
국내 학술지	10(10.31)	16(16.49)	58(59.80)	7(7.22)	6(6.19)	97
전체	40(21.05)	34(17.89)	82(43.16)	16(8.42)	18(9.47)	190

3. 특기적성교육 관련연구의 연도별·주제별 연구경향

연구의 발행 시기와 주제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2013~2015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이 시기에 전체 연구의 40.53%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은 2010~2012년(38.95%), 2007~2009년(19.47%), 2004~2006년(1.05%)순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시기(2004~2006년)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 발간된 연구 2편 모두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였고, 2007~2009년에는 37편의 연구 중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8편),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7편) 순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과 2013~2015년에도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운영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 및 인식조사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4〉 특기적성교육관련 연구 연도별 주제별 연구경향 단위: 편, %

주제 \ 시기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교수·학습 지도방법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2004~2006	2(1.05)	0(0.00)	0(0.00)	0(0.00)	0(0.00)	2(1.05)
2007~2009	8(4.21)	7(3.68)	13(6.84)	5(2.63)	4(2.11)	37(19.47)
2010~2012	15(7.89)	12(6.32)	32(16.84)	7(3.68)	8(4.21)	74(38.95)
2013~2015	15(7.89)	15(7.89)	37(19.47)	4(2.11)	6(3.16)	77(40.53)
전체	40(21.05)	34(17.89)	82(43.16)	16(8.42)	18(9.47)	190(100.00)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주제는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전체 연구의 43.16%인 82편이 연구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7~2009년 13편(6.84%)수준이었던 연구가 2010~2012년 32편(16.84%)으로 급증하였고, 2013~2015년 37편(19.47%)로 전체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2004~2006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초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로, 2007~2009년 8편(4.21%), 2010~2012년, 2013~2015년 모두 각각 15편(7.89%)이 연구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2007~2009년 7편(3.68%), 2010~2012년 12편(6.32%), 2013~2015

년 15편(7.89%)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2007~2009년 4편(2.11%), 2010~2012년 8편(4.21%), 2013~2015년 6편(3.16%)이었고, 교수・학습지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2007~2009년 5편(2.63%), 2010~2012년 7편(3.68%), 2013~2015년 4편(2.11%)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특기적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추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에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190편을 검색하여 발행연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했다.

첫째,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시작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9년 이후부터는 매해 평균 20편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다가 2010년(27편)과 2013년(31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연도별 연구추이는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4년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였고,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진행되자 2005년부터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 방과후학교정책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자체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가 확산되면서 2007년부터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확대되고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학교전담팀을 조직하였고 2007년 방과후학교정책과를 설치・운영하였고, 2009년 방과후학교팀을 운영하는 등 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이다. 이 시기 진행된 연구 또한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듯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초중등학교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토요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정규학교 수업시간에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열리는 등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면서 2013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되어, 특기적성교육보다는 초등돌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특기적성교육이 활

발하게 진행될 경우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별 연구경향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주제는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82편(4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 40편(21.05%),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조사가 34편(17.89%), 프로그램 만족도가 18편(9.47%), 교수・학습 지도방법 16편(8.4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중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2004년부터 정부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양적확장을 주도하여,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프로그램 운영실태인데, 이는 2012년부터 시행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개인위탁, 업체위탁 등으로 인해 운영주체가 다양해지면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홍원・양애경・김수동・정영모・김주섭・정종민・유재복・윤준영・양윤이・노상수・채명숙, 2015).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특기적성교육이 양적인 면에서 성장을 해왔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기적성교육 보다 교과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초등학교 현장을 생각해 볼 때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강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특기적성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임용고사를 거친 초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수법에 대한 연구도 추후 더 진행되어, 강사가 초등학생의 발달 과정과 요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의 발행 시기와 주제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시기(2004~2006년)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서 연구 2편 모두가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아동과의 관계, 프로그램운영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 및 인식조사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주제인 프로그램 효과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2013~2015년 37편(19.47%)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이고 교수・학습 지도방법은 가장 적게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기적성 강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초등학생의 특기적성교육 효과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이선미・김찬진, 2008) 외부강사 선정 시 엄격한 자격 기준과 심사과정이 필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이나 다양

한 학습지도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 초기 관심을 가지고 진행 되었던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조사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기관이나 자원봉사자가 협력해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특기적성을 담당하는 외부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의 처우와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외부강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수·학습 지도방법, 만족도, 프로그램운영 실태조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 전체에 대한 연구 경향을 학술지와 보고서, 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경기도 여성의 취업욕구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2015).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6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김미정·정계숙·박희경 (2010). 다자녀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자료. 육아정책연구소.

김유림 (2014). 양산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용 인식도 조사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자·한성심 (2014). 지역아동센터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2), 1~10.

김홍원·양애경·김수동·정영모·김주섭·정종민·유재복·윤준영·양윤이·노상수·채명숙 (2015). 현장중심 방과후학교 교육개론. 동문사

노성향 (2004). 방과후 아동지도 연구 경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11**(1), 71~86.

문유경 (201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현황과 정책 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과후학교 포털사이트. www.afterschool.go.kr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10).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미・김찬진 (2008). 특기적성 외부강사가 인식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321~352.

이혜숙 (2009). 서울시 방과후학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SDI 정책리포트, 34**, 1~2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은희・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통계청 (2015).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www.kostat.go.kr

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4년 OECD 교육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ABSTRACT

An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n Special Ability Aptitud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Rho, Sung-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special ability aptitud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reviewed published journals and articles from 2004 to 2015. The journals and articles were selected from Research and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researches were increasing constantly after 2007. Government' policy of special ability aptitud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affected the research. Policy goals of special ability aptitud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was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since 2004. The greatest number of research themes was effect of program on child. We need more research about teaching method, program's diversification, ways of quality enhancement, and improvement of teacher'professionalism. This paper also provides a future direction of special ability aptitud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 special ability aptitude education, research trends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2, 13-24.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연구경향

장 은 정*　　김 현 자**

〈요 약〉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연구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발표현황, 연구유형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 및 주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위논문보다는 학술지가 전체편수에서 60.5%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사연구에 편중되었고 회귀분석과 기술분석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은 운영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운영체간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드림스타트사업, 연구동향, 학위논문, 학술지

· 논문접수: 2016. 10. 27 / 수정본접수: 2016. 12. 12 / 게재승인: 2016. 12. 15
* 두원공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hermess4@hanmail.net)
** 두원공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Ⅰ. 서 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동복지법의 제정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정 등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의 빈곤이 사회적 행동 및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허인영, 1999; 신다은, 2012),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교육, 위험행동, 주거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빈곤계층 아동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열악하며, 위험행동은 차상위계층 아동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김미숙, 2013)도 있다. 최근에는 아동의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장희선・김기현, 2014) 외에도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연구(이미영, 2016)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빈곤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지만, 아동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과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들 중에서 국가사업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이는 아동 및 가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강정숙, 2015). 이는 정부가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아동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인정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정부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새로운 아동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2007년도에 '희망스타트'로 시작하여 2008년에 '드림스타트'(Dream Start) 로 전환되면서 사업지역이 두 배로 확장되었으며, 2009년 드림스타트 센터 평가체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의 근거가 신설되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기로 정부가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을 시도하게 됨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의의로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b).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 중에서 취약아동보호정책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5년에 전국에 229개의 사업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아동복지서비스가 공적부조, 후원결연 연계 등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기로 정부가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이 현재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한편, 향후 사회적 갈등과 사회문제로 인한 사

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투자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남기철 · 송미령, 2015). 따라서 앞으로도 빈곤아동 및 그 가족이 교육과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도움이 적절히 보강, 유지되어야 하는 아동보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대상아동의 규모도 확대되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증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9년부터 효과성 연구는 매해 진행되었다(남기철 외, 2015).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드림스타트 사업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서의 실천적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된 시기이후 현재까지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실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모색에 기초자료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연구의 발표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연구의 연구유형 및 분석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연구동향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통합검색을 활용하여 검색주제어로 '드림스타트'를 사용하여 관련 논문 총 38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및 자료처리

분석 기준은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황인옥, 2014; 김현자 · 노희연 · 이영, 2009)를 토대로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의 발표 경향 및 연구내용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즉, 분석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유형은 이효정 노희연 김성숙(2007) 연구를 참고로 조사연구, 상관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 평가도구 및 타당화 연구,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질적연구, 문헌연구, 통합연구로 나누어 연도별로 분포를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기분석, 질적 분석, 문헌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는 드림스타트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내용을 수집하여 3인의 전문가가 논문을 분석한 후 의견을 나누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자료 분석기준을 분류하였는데. 연구대상은 이용영유아, 이용 아동(초등학생), 저소득 가정아동의 부모, 운영 현장 전문가, 드림스타트센터이용 아동과 양육자, 공무원과 이용자, 관련 문헌, 부모 및 전문가로 분류하였고, 연구주제는 효과성, 이용아동 만족도, 부모 만족도, 사업종사자의 직무만족도, 프로그램 만족요인, 부모, 전문가 또는 아동과의 관계, 프로그램 및 사례,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바우처 참여 사교육기관 인식, 드림스타트 연계요인,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주제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및 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8.0을 활용하였으며, 연도에 따른 학위논문과 학술지의 논문 편수,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유형,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기술통계분석 방법으로서 두가지 문항을 동시에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연구동향에 대한 결과를 기술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교차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의 연도별 발표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인 논문38편에서 60.5%가 학술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에만 학술지보다 학위논문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의 유의성 검증결과 년도별로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 5.861, p>0.05)

2. 연구유형 및 분석방법

1)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유형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연구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유형은 조사연구로 19편(50.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헌연구가 6편(15.8%)

〈표 1〉 드림스타트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N(%)

	학위논문	학술지	전체	χ^2(p)
2009	0(.0)	2(100)	2(100.0)	5.861 (.439)
2010	3(42.9)	4(57.1)	7(100.0)	
2011	2(33.3)	4(66.7)	6(100.0)	
2012	3(75.0)	1(25)	4(100.0)	
2013	2(33.3)	4(66.7)	6(100.0)	
2014	1(16.7)	5(83.3)	6(100.0)	
2015	4(57.1)	3(42.9)	7(100.0)	
2016	0(.0)	0(.0)	0(.0)	
전체	15(39.5)	23(60.5)	38(100.0)	

〈표 2〉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유형 N(%)

	조사 연구	상관 연구	관찰 연구	평가 도구 및 타당화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통합적 연구	전체	χ^2 (p)
2009	0(.0)	0(.0)	0(.0)	1(50.0)	0(.0)	0(.0)	1(50)	0(.0)	2(100.0)	46.632 (.288)
2010	3(42.9)	1(14.3)	0(.0)	0(.0)	1(14.3)	0(.0)	2(28.6)	0(.0)	7(100.0)	
2011	3(50.0)	0(.0)	1(16.7)	1(16.7)	1(16.7)	0(.0)	0(0)	0(.0)	6(100.0)	
2012	4(100.0)	0(.0)	0(.0)	0(.0)	0(.0)	0(.0)	0(.0)	0(.0)	4(100.0)	
2013	4(66.7)	0(.0)	0(.0)	0(.0)	0(.0)	0(.0)	2(33.3)	0(.0)	6(100.0)	
2014	3(50.0)	0(.0)	0(.0)	0(.0)	2(33.3)	1(16.7)	0(.0)	0(.0)	6(100.0)	
2015	2(28.6)	0(.0)	0(.0)	0(.0)	1(14.3)	1(14.3)	1(14.3)	2(28.6)	7(100.0)	
20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9(50.0)	1(2.6)	1(2.6)	2(5.3)	5(13.2)	2(5.3)	6(15.8)	2(5.3)	38(100.0)	

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 연구의 약 65%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의 절반 이상이 조사연구와 문헌연구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이 5편으로 13.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상관연구, 관찰연구는 각각 1편의 연구들만이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2016년간의 연구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는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는 총 19편이었으며, 2016년 현재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9편(50%)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 드림스타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분석의 유의성 검증결과 년도별로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유형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46.632, p>0.05)

2) 드림스타트 관련 자료분석 방법

〈표 3〉 드림스타트 관련 자료분석 방법 N(%)

	기술분석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질적분석	문헌분석	통합분석	전체	χ^2(p)
2009	1(50.0)	0(.0)	0(.0)	0(.0)	0(.0)	1(50.0)	0(.0)	2(100.0)	
2010	2(28.6)	0(.0)	1(14.3)	1(14.3)	2(28.6)	1(14.3)	0(.0)	7(100.0)	
2011	2(33.3)	1(16.7)	0(.0)	1(16.7)	1(16.7)	0(.0)	1(16.7)	6(100.0)	
2012	1(25.0)	0(.0)	0(.0)	2(50.0)	0(.0)	0(.0)	1(25.0)	4(100.0)	32.126
2013	1(16.7)	1(16.7)	0(.0)	3(50.0)	1(16.7)	0(.0)	0(.0)	6(100.0)	(.653)
2014	2(33.3)	1(16.7)	0(.0)	1(16.7)	1(16.7)	0(.0)	1(16.7)	6(100.0)	
2015	0(.0)	0(.0)	0(.0)	2(28.6)	2(28.6)	0(.0)	3(42.9)	7(100.0)	
2016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9(23.7)	3(7.9)	1(2.6)	10(26.3)	7(18.4)	2(5.3)	6(15.8)	38(10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회귀분석이 10편(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술 분석이 9편(23.7%), 질적 분석이 7편(18.4%), 통합분석이 6편(1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차이분석은 3편(7.9%), 문헌분석은 2편(5.3%), 상관분석은 단 1편(2.6%)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한 연구에서 상관분석이나 문헌분석의 자료 분석방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림스타트에 대한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에서 기술분석, 회귀분석, 질적 분석의 자료 분석방법이 26편(68.4%)인 것으로 나타나 드림스타트의 자료 분석방법은 대부분 기술 분석, 회귀분석, 질적 분석의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분석의 유의성 검증결과 년도별로 자료분석방법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32.126, p>0.05)

3) 연구 대상 및 연구주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표 4〉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대상

	이용 영유아	이용 아동 (초등 학생)	저소득 가정	아동의 부모	운영 현장 전문가	드림 스타트 센터	이용 아동과 양육자	공무원 과 이용자	관련 문헌	부모 및 전문가	전체	χ^2 (p)
2009	0(.0)	0(.0)	0(.0)	0(.0)	1(50.0)	0(.0)	0(.0)	0(.0)	1(50.0)	0(.0)	2(100.0)	
2010	1(14.3)	0(.0)	0(.0)	1(14.3)	1(14.3)	0(.0)	1(14.3)	0(.0)	3(42.9)	0(.0)	7(100.0)	
2011	0(.0)	1(16.7)	1(16.7)	0(.0)	2(33.3)	1(16.7)	1(16.7)	0(.0)	0(.0)	0(.0)	6(100.0)	
2012	0(.0)	1(25.0)	0(.0)	0(.0)	3(75.0)	0(.0)	0(.0)	0(.0)	0(.0)	0(.0)	4(100.0)	51.579
2013	0(.0)	1(16.7)	1(16.7)	0(.0)	0(.0)	0(.0)	1(16.7)	1(16.7)	2(33.3)	0(.0)	6(100.0)	(.568)
2014	0(.0)	1(16.7)	0(.0)	1(16.7)	0(.0)	2(33.3)	2(33.3)	0(.0)	0(.0)	0(.0)	6(100.0)	
2015	0(.0)	1(12.5)	0(.0)	0(.0)	2(25.0)	1(12.5)	0(.0)	1(12.5)	1(12.5)	2(25.0)	8(100.0)	
20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2.6)	5(12.8)	2(5.1)	2(5.1)	9(23.1)	4(10.3)	5(12.8)	2(5.1)	7(17.9)	2(5.1)	39(100.0)	

운영 현장 전문가가 9편(2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드림스타트 관련 문헌이 7편(17.9%),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초등학생)과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과 양육자가 각각 5편(12.8%), 드림스타트센터가 4편(10.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드림스타트 이용 영유아는 1편(2.6%), 드림스타트 저소득 가정, 드림스타트 아동의 부모, 드림스타트 공무원과 이용자, 드림스타트 관련문헌과 부모 및 전문가는 각각 2편(5.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드림스타트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이용 초등학생, 드림스타트 운영 현장 전문가,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과 양육자, 드림스타트 관련 문헌이 전체 연구대상의 26편을 차지하여 전체의 68.4%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의 유의성 검증결과 년도별로 연구대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51.579, p>0.05)

4)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주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주제는 효과성,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각각 7편(1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및 사례가 5편으로 13.2%를 차지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요인이 4편(10.5%), 이용아동 만족도, 부모만족도, 부모와전문가 또는 아동과의 관계가 각각 3편(7.9%) 순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한 연구 주제는 주로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및 사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의 유의성 검증결과 년도별로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84.950, p>0.05)

〈표 5〉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주제

	효과성	이용 아동 만족도	부모 만족도	사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 요인	부모, 전문가 또는 아동과의 관계	프로그램 및 사례	전문 요원의 사례 관리	바우처 참여 사교육 기관 인식	드림 스타트 연계 요인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전체	χ^2(p)
2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0.0)	1 (50.0)	2 (100.0)	84.950 (.058)
2010	0 (.0)	0 (.0)	1 (14.3)	0 (.0)	0 (.0)	0 (.0)	1 (14.3)	0 (.0)	0 (.0)	1 (14.3)	0 (.0)	4 (57.1)	7 (100.0)	
2011	1 (16.7)	1 (16.7)	0 (.0)	0 (.0)	2 (33.3)	0 (.0)	2 (33.3)	0 (.0)	0 (.0)	0 (.0)	0 (.0)	0 (.0)	6 (100.0)	
2012	0 (.0)	0 (.0)	0 (.0)	1 (25.0)	1 (25.0)	0 (.0)%	1 (25.0)	1 (25.0)	0 (.0)	0 (.0)	0 (.0)	0 (.0)	4 (100.0)	
2013	1 (16.7)	1 (16.7)	2 (33.3)	0 (.0)	1 (16.7)	0 (.0)	0 (.0)	0 (.0)	0 (.0)	0 (.0)	0 (.0)	1 (16.7)	6 (100.0)	
2014	3 (50.0)	1 (16.7)	0 (.0)	0 (.0)	0 (.0)	2 (33.3)	0 (.0)	0 (.0)	0 (.0)	0 (.0)	0 (.0)	0 (.0)	6 (100.0)	
2015	2 (28.6)	0 (.0)	0 (.0)	0 (.0)	0 (.0)	1 (14.3)	1 (14.3)	1 (14.3)	1 (14.3)	0 (.0)	0 (.0)	1 (14.3)	7 (100.0)	
20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7(18.4)	3(7.9)	3(7.9)	1(2.6)	4 (10.5)	3(7.9)	5(13.2)	2(5.3)	1(2.6)	1(2.6)	1(2.6)	7(18.4)	38 (100.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연구의 발표 현황에 있어서는 학위논문 15편과 학술지23편으로 전체 논문 38편에서 60.5%가 학술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2012년과 2015년에만 학술지보

다 학위논문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1년에 제정된「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빈곤아동지원법'이라고 한다)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의 유형에 있어서는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의 절반 이상이 조사연구와 문헌연구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 유형은 조사연구가 50%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문헌연구가 많았다.

드림스타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학위논문보다는 학술지를 통해 회귀분석 및 기술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드림스타트의 자료 분석방법은 대부분 기술분석, 회귀분석, 질적 분석의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기간이나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편의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단기간에 검증되어야 할 연구주제가 많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 대상자들에 한해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위기도와 서비스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기도와 서비스 기간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송미령 · 김정화, 2014). 즉 드림스타트 참여로 인해 부모의 안녕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한 운영측이나 수혜자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질적연구도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숙(2015)이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듯이 저소득부모들에게 기쁨,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방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운영 현장 전문가 대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드림스타트 관련 문헌,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과 양육자, 드림스타트 센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항목과 관련해 드림스타트 현장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남일재 · 임 혁 · 신나래, 2011)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라고

하겠다.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관련 연구주제는 효과성,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으로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례관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기구인 슈퍼비전과 멘토.멘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 아니라 제공서비스에 관해 아동과 그 가족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아동과 그들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본 목적이 최대로 달성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정숙 (2015). 드림스타트 저소득부모와 전문인력의 관계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 (2013). 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월** 통권 제206호, 35-47.

김현자・노희연・이 영 (2009). 예비유아교사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6**, 31-48.

남기철・송미령 (2015). 2014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보건복지부・(재)한국보육진흥원.

남일재・임 혁・신나래 (2011). 포괄적 아동복지서비스로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서비스 질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1), 19-46.

보건복지부 (2013a).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보건복지부 (2013b).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신다은 (2012). 빈곤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영 (2016). 빈곤아동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동빈곤예방법 및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7),** 3-25

장희선 · 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누적적 위험요인의 효과분석-. **한국아동복지학(47),** 185-216.

조용남 (2015).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드림스타트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인영 (1999). 빈곤에 대한 해결이 빈곤결손가정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연구: 가출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옥 (201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에 대한 연구동향. 23(3). 127-146.

ABSTRACT

The Trends of Research on the Dreamstart Project - With a Focus on the Graduate Theses and the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for 2009～2016 -

Jang Eun Jung · Kim Hyun Ja

This research examines the trends of researches on the Dreamstart project and attempt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searches on child welfare work for the happy life of children. To do this, the current conditions of publications, research types and research methods, research objects and themes, graduate theses and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in relation to the Dreamstart project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which accounted for 60.5% of the total, was greater than that of graduate theses, and most of them were survey researches, regression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es. The highest number of researches were on operating field experts and the highest number of researches were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 current conditions of related policies and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iverse and continuous researches related to this project should be explored so that efficient operation can be achieved for the satisfaction of users and for the operating body of this project.

Key words : Dreamstart project, research trend, graduate thesis, academic journal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2, 25-43.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이 가지는 의미

신 호 정*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시간의 사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시간 활용과 요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개별 면담, 집단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시간은 사교육을 위한 학습의 연장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동들은 방과후 잠깐 휴식을 취한 뒤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아동이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집 안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책을 보는 등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아동은 컴퓨터 게임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자녀가 방과후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경우 부모들은 현재의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과 대비로 인해 자녀를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게 되며 자녀가 방과후 시간을 학원에 가는 것과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갈등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경우는 사교육을 위한 수업시간이라는 의미 외에도 퇴근하는 부모를 기다리기 위하여 학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간은 단순한 학습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제어 : 방과후, 방과후 시간, 초등학생, 의미

· 논문접수: 2016. 10. 30 / 수정본접수: 2016. 12. 12 / 게재승인: 2016. 12. 15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가족 체계에서 가족 안에서 해결된 가족의 역할들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회로 분담되고 있다. 아동의 돌봄에 대한 역할이 가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에 대한 연구(김지희, 2012)에서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독서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 보호자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방과후 시간 활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의 경우는 다른 학령기 아동에 비하여 방과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보호자 부재시 자기보호 상태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는 방과후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천희영, 2014). 이처럼 아동은 각 개인이 상황에 따라 방과후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은 놀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7년 EBS의 지식채널 e에서 방영된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2007년 4월30일 방영, EBS 홈페이지 VOD 조회 1위)'이라는 영상을 살펴보면, 많은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이 영상을 살펴보면 많은 아동들이 방과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습과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십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현실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을까?

오늘날의 아동들 역시 방과후의 시간을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다. 즉 초등학생들은 평일의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학원이나 과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정송, 2005). 모든 아동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 시간은 크게 생활을 위한 시간, 학업 및 일로 보내는 시간, 학교가 끝난 뒤 갖는 방과 후 시간으로 나뉜다(Fuligni &Stevenson, 1995; 이미리, 2001). 아동은 24시간 가운데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을 하거나 취미, 휴식활동을 하기도 하며 부족한 학습의 부분을 보충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방과후 시간은 아동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질 수 있지만 오만석(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학교 시간 외의 학습시간이 하루 156.2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 시간외 학습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일찍 수업이 끝나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학교 외 수업 즉, 사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방과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연구(오지수, 2007)에서 자녀의 성적은 부모가 뒷바라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곧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보다는 도덕적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전계층에서 동의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아동에게 주어지는 방과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학습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박창환, 2008; 이재혁, 2012; 한정규. 허원석, 2013)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방과후 시간 활용은 아동의 여러 가지 발달면에서 중요한데, 아동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일 경우,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가정적이고 편안한 교육적 환경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노신민, 양애경, 조호제, 2008). 취업모 가정의 자녀는 방과후 시간관리와 더불어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방과후 나홀로 집을 지키는 자기 보호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적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맞벌이 아동부모의 퇴근 시간에 될 때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와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는 취업모 가정 자녀의 방과후 시간의 의미는 비취업모 가정의 자녀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가존의 초등학생들의 방과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과후 활동이 아동의 학업, 신체적 발달과 갖는 관계에 대한 연구(김영재, 김효중, 차은주, 2015; 김호, 김재철, 2012; 조건상, 최영준, 2016)와 활성화 방안(권영심, 2005; 노신민 외, 2008)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정송(2005)의 연구에서 방과후 아동의 여가시간 사용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이는 초등학생이 가지는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학령기 아동에 비하여 방과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방과후 시간의 사용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 아동의 시간 사용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지는 생각과 고충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들이 일률적으로 보내는 학교생활에 비하여 방과후 시간은 학생들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보내며 이러한 자녀의 방과후 시간을 아동의 부모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부모가 가지는 생각을 알고 이해할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과후 시간을 계획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보내는 방과후 시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저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 방과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선정하였고 그 중 참여의사를 밝힌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취업모였으며 나머지 2명은 전업 주부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이름	연령	자녀의 나이	취업유무
학부모A	39세	9세	취업모
학부모B	42세	9세	전업주부
학부모C	40세	8세	전업주부
학부모 D	48세	9세	취업모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개별면담 3회와 집단면담을 1회 실시하였으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과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면담 후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면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개별 면담 시간은 1회에 1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각 개인당 3회씩 실시되었고, 참여자들의 집단 면담은 1회 2시간 정도 실시되었다.

〈표 2〉 연구 과정

모임	날짜	참여자
개별면담	2016.9.13	학부모A
	2016.9.15	학부모B
	2016.9.22	학부모C
	2016.10.3	학부모A, C, D
	2016.10.9	학부모B
	2016.10.15	학부모C, D
	2016.10.16	학부모A
	2016.10.21	학부모B, D
집단면담	2016.11.4	학부모A, B, C, D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개별면담, 집단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의 형식은 연구자가 본 주제와 관련되어 알고 싶은 질문들의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면담을 하는 구조화된 면담과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형식의 대화도 함께 하였다. 집단면담의 경우는 참여자의 시간을 맞추어서 함께 편한 장소에서 만나 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면담 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면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이 내용들을 전사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21개의 핵심단어를 도출하였다. 핵심단어는 사교육, 수업의 연장, 혼자 놀기와 게임, 휴식과 만화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짐 수업, 놀이터, 시간 맞추기 어려움, 학원, 키즈 까페, 여유, 방과후 프로

〈표 3〉 주제어의 범주화

사교육, 학습시간의 연장	혼자만의 휴식시간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	갈등과 혼란의 시간
수업의 연장	안전을 고려한 휴식시간	부모의 시간관리가 수월한 방과후 사교육	
친구를 만나기 위한 방과후 체육 수업	혼자 게임하기	학습보다는 보호를 위한 선택	

그램, 공교육, 학습지, 엄마의 교육관, 교육정책, 안전, 엄마의 욕심, 시간관리, 현실, 각자의 스케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믿음 등이다.

Ⅲ. 연구결과

초등학생 자녀들의 방과후 시간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부터 시작되는데, 아동이 처한 상황과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하교시간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방과후 각자의 정해진 일정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은 막연한 휴식의 의미보다는 학원, 학습지, 과외 등의 사교육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에도 아동이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게 될 경우를 우려하여 아이를 밖에 보내지 않는 등 안전의 이유로 놀이터와 같은 실외놀이보다는 혼자서 만화책을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하였다.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이 아동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부모가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었다.

1. 사교육, 학습시간의 연장

방과후 집으로 오는 아동은 학습지 수업을 하거나 학원을 가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와 수학 등의 학원을 가거나 집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학습지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교육의 대부분은 영어와 수학 등의 과목을 위한 것이었지만 때로는 짐수업이라고 하여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어. 수학 과목의 사교육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혹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 수업의 연장

> 우리 아이는 화, 수, 목요일 학교가 끝나면 바로 영어학원을 가는데 그런 날은 아이가 힘들어하긴 해요. 학교 앞으로 학원버스가 오는데 그걸 타고 바로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5시가 좀 넘어요. 힘든 걸 알지만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니는 데 우리 아이만 다니지 않을 수도 없어서 다녀요. 그리고 금요일은 수학 학원을 가는데 수학 학원의 경우는 집으로 와서 간식을 좀 먹고 학원으로 가요. 집으로 오는 길에 놀이터를 들러서 잠시 놀기도 해요. 그 때마다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과 잠시 어울려서 놀아요.
>
> (2016. 9. 13. 학부모A)

학교 수업이 끝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학원버스를 타고 영어학원을 가요. 그렇게 영어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이후는 간식 먹고 쉬다가 다시 학습지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학습지 수업을 해요. 학교와 학원 이후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지 선생님은 아이가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거니까 몸이 조금 덜 힘들거라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놀면 좋긴 한데, 사실 친구들이 그 시간에 나가도 있는 건 아니라서...

(2016. 9. 15. 학부모B)

우리 아이는 학교 수업이 일찍 마치는 편이라서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친구들과 정해서 놀이터에서 30분 정도 놀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영어학원을 가요. 대개는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간식 먹고 조금 쉬었다가 가요. 아이가 힘들어 보일때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모두 다니고 있어서 안다닐 수는 없어요.

(2016. 9. 22. 학부모C)

우리 아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바로 영어학원을 가요. 영어학원 갔다 오면 아주머니가 간식을 주시니까 그것을 먹고 잠시 쉬어요.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경우는 숙제가 많은 편이라 학원 갔다 오면 잠시 쉰 다음 다시 숙제를 해야해요.

(2016. 10. 3 학부모D)

학부모 A,B,C,D 모두 방과후 사교육으로 영어 수업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권미나, 2007; 남미숙, 2010)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 사교육 가운데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 모두 아동의 방과후 시간은 적절한 휴식을 하며 보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은 모두 방과후 잠깐의 휴식 혹은 휴식 없이 바로 영어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더불어 아이들이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막상 놀이터나 실외 공간에서도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입시제도로 보았을 때, 학교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결국은 사교육에서 해결하게 되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방과후에도 계속 학원을 가야하

는 상황이 되는 거구요.

(2016. 11. 4. 집단면담 학부모A)

2) 친구를 만나기 위한 방과후 체육 수업

초등 저학년 아동들이 방과후 사교육 수업을 위하여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외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동은 발육.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어릴 때부터 규칙적 운동습관을 길러주어 건강한 체력을 유지,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문윤제, 2008). 따라서 저학년 아동들 특히, 남아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방과후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는 방과후에 동네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공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요즘은 방과후에 같이 놀 시간도 없고 같이 놀 친구들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들은 방과후 체육 활동 시간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신체활동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는 남자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래간의 친목도모가 중요한 듯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떠한 계획없이 그냥 노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선생님을 한 분 두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들이 그냥 밖에서 놀아도 되는 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보내고 싶고 친구들이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밖에 나가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자 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과후 체육 수업을 통해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는 것 같아요.

(2016. 10. 15. 학부모C)

저는 아이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부딪히며 놀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과후 체육수업을 받으러 가요. 친구랑 노는 시간은 부족하고 놀이터에 친구들은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친구들은 방과후에 학원을 가니까 방과후 체육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만이라도 친구들과 부딪히며 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방과후 체육 수업을 만들어서라도 가서 놀고 오도록 하고 있어요.

(2016. 10. 16. 학부모A)

우리 아이는 태권도를 다니는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는거예요. 놀 시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시간동안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친구들도 학원을 가야하니까... 태권도

도장에 가면 또래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잠시나마 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 정해진 시간동안 계획적으로 놀이 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2016. 10. 3. 학부모D)

아동의 방과후 체육수업 참여는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와 학교생활 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재혁, 2012; 박창환, 2008), 이 시간을 통해 아동은 방과후 시간을 또래 친구들 어울릴 수 있다. 실제로 개별면담에서 학부모들은 체육 수업을 위한 방과후 체육보다 또래 친구들과 만나 어울리기 위한 시간을 위해 방과후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개별면담 대상자의 자녀가 방과후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다.

2. 혼자만의 휴식 시간

방과후 집으로 돌아와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 아동들의 대부분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집 안에서 개인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동들 각자의 일정이 다르고,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들만 놀도록 하는 것을 걱정되어서 집 안에서 아동 혼자서 독서, 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1) 안전을 고려한 휴식시간

아동이 방과후에 실외에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더라도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는 곳에서 아동들이 놀이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제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예요. 여자아이라 내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혼자 하도록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직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 가지는 않아요. 아이를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자아이이다 보니 방과후에 어디를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곳이나 아이의 안전이 확실한 곳에서만 놀이를 하도록 해요.

(2016. 10. 16. 학부모A)

우리 아이는 그래도 자유시간이 많은 편이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쉬면서 보내기는 하는데 밖에서 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아이를 놀도록 하다보니까

혼자 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간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빈둥대며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2016. 11. 14. 집단면담 학부모B)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간혹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럿이고 조금 크면요, 도우미 아주머니 없이 아이들끼리 있기도 해요. 저는 집에 아이를 봐주는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놀도록 하고 있어요. 아이가 방과후에 쉬거나 친구를 만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놀이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들의 시간을 맞추어야 하니까 함께 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2016. 10. 3. 학부모A)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서 남자아이도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것이 가끔 걱정되요.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아이 혼자만은 밖에 보내지 않게 되요. 그렇다고 걱정이 되어 따라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놀거나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이 있는 상황에서 놀도록 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처럼 동네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려 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016. 9. 22. 학부모C)

2) 혼자 게임하기

방과후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많은 아동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정송, 2005; 김현자, 한성심, 장은정, 조득현, 2013).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아이들 각자의 일정과 안전 등의 이유로 아동들은 방과후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시간들이 독서, 게임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우리 아이는 방과후 집에 오면 만화책을 보면서 쉬어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기 힘드니까 혼자서 방과후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다보니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책도 보고 그림도 그렸는데 점점 게임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요. 방과후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있게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은 쉰다는 명목 하에 게임을 많이 하게 되요.

(2016. 11. 7. 학부모B)

방과후에 친구랑 논다고 하면 대부분은 친구랑 게임을 많이 하게 되요. 그래도 작년에는 놀이터 나가면 간간히 친구들이 있긴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친구들도 놀이터에 안 나오고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드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친구랑 시간이 맞으면 그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아이들은 나가서 뛰어노는 거 아니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방과후에 학원을 가지 않는 날은 휴식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게임을 해도 놔둘 수 밖에 없어요. 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려고해요.

(2016. 9. 13. 학부모A)

3.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

아동의 방과후 시간은 아동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취업모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며,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도 아동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사교육을 통해 보호자의 부재를 해결하고 있었다. 취업모는 늦은 퇴근 시간과 피로함으로 자녀의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염려하였다(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실제로 이 시간은 사교육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있는 시간 혹은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의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1) 부모의 시간관리가 수월한 방과후 사교육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학습을 위하여 학원을 이용하는 목적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가 학원에 있는 시간동안은 아동의 위치와 활동을 다소나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과후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학습의 이유와 함께 부모 부재시의 아동 관리를 위하여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제가 일을 하는 날은 아이가 내 눈앞에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니까, 그런 날을 차라리 학원이라도 가면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있겠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요. 그래서 맞벌이 엄마는 방과후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도 크다고 봐요. 사실 그 시간동안 아이는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

에서는 엄마가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아이가 차라리 학원에 가지 않고 나랑 같이 있어요. 나랑 집에서 숙제를 하기도하고 놀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 날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의 일정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학원이라도 보내게 되요.

(2016. 9. 13. 학부모A)

제가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시간동안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혹시나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동안은 아이가 학원을 가도록해요. 학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동안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6. 10. 21. 학부모D)

맞벌이 가정인 학부모 A와 D의 경우는 방과후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었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비록 부모가 방과후 동안 함께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을 자녀가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있기보다는 학원에 가면 부모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자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미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시간동안은 최대한 학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2) 학습보다는 보호를 위한 선택

맞벌이 가정에서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가한다(서영숙, 2007). 즉, 자녀의 초등 진학으로 양육과 더불어 부모가 없는 시간 동안 자녀의 일과에 대한 걱정과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야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취업모의 자녀가 방과후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노신민 외, 2008)에서 취업모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의 이유가 아동을 돌보아 줄 보호자가 집에 있지 않아서 자녀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부모가 없는 동안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적어도 자녀가 혼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학원을 결정할 때에도 학습적인 부분과 함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회식이 있거나 일이 늦어지는 날에는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아이가 하루 종일 무얼 했는지도 걱정이 되고 내일 학교 준비물이라든지 숙제를 잘 챙겨주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방과후 시간은 적어도 아이의 숙제도 봐줄 수 있고 또 아이가 같이 있어서 안전한 선생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모가 옆에 없으니까 안전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요.

(2016. 11. 14. 집단면담 학부모A)

우리 아이는 제가 퇴근이 늦는 날에는 학습의 차원이 아니라 야간 보호 차원에서 학원을 가요. 아이를 돌보아 주는 분이 퇴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끼리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아이들 수업이 마칠 때 즈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을 수학.영어와 같은 학원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곳인데 선생님이 내가 조금 늦더라도 잠깐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시니까 믿을 수 있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후 시간은 학원에서 수업도 하지만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2016. 10. 21. 학부모D)

4. 갈등과 혼란의 시간

학부모들과 아동의 방과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부모 모두가 아이들이 방과후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지금의 방과후 시간을 사교육과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것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 앞으로 아이들이 겪게 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초등학생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공교육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만과 불안함이 사교육비 지출과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진영, 2012).

방과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엄마의 교육관과도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요. 방과후 아이를 학원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할 것인지는 엄마의 교육관과 관련이 있어요. 크게 보면 교육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아이가 놀기만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학원을 가기는 가는데 사실 마음은 아이가 안쓰럽고 그래요.

(2016. 9. 15. 학부모B)

우리 아이도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자유시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오히려 더 제대로 아이를 공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자유롭게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많이 놀기만 한 것은 아닌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에 살면서 입시를 치러야하는데 그렇게 할거면 방과후시간을 저학년 때부터라도 잘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후회도 조금 들어요. 다 교육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2016. 11. 14. 집단면담 학부모C)

저는 늘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으니까 휴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시간들이 아이에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인 내가 보기에는 그 시간에 뭐라도 배워야하나, 아니면 책이라도 읽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예요.

(2016. 10.15. 학부모D)

참여자들과 면담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의 방과후 시간은 결국 현재의 입시나 교육제도와 관련 있었다. 오늘날과 같은 입시제도와 정책 하에서는 사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었고 나아가 방과후의 시간을 잘 관리하여 입시제도와 정책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시간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의 방과후 시간 사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아동의 방과후 시간이 좀 더 의미있게 사용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4명에 대한 개별, 집단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초등 저학년 아동의 대부분은 방과후 시간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시간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2006, 여성부). 아동들은 대부분 방과후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아동이 평일 여가 활동 시간을 학원과 과외에 할애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정송, 2005)와 일치하였다. 또한 초.중.고등 학생의 방과후 시간 양태를 조사한 연구(김지희,

2012)에서 초등학생의 75.1%, 중학생의 63.5%, 고등학생의 52.9%가 방과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한다. 상대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이 짧은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가정으로 돌아와서 짜여진 일정에 따라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의 시간은 아동에게 학습 시간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과후 사교육의 형태가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학습을 위한 사교육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회성 발달과 아동 또래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방과후 체육과 같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의 초등학생들은 우리의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책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처럼 부족한 자녀의 신체 활동 시간에 대한 염려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또래 관계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자녀를 방과후 체육활동과 같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영역들이 오늘날에는 사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다양한 사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동들은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이유뿐 아니라 학습 외 기타의 영역에서도 부족한 시간들을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둘째, 방과후 아동이 가지는 휴식시간은 아동이 또래 친구와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시간이 아닌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부모가 자녀를 놀이터와 실외 공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휴식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더라도 또래 친구와 일정이 맞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혼자만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서, 게임 등의 활동 가운데 컴퓨터 게임과 TV시청으로 휴식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김경화.서영숙, 2010; 김지희, 2012). 이는 아동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놀이터와 실외공간에서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아동이 혼자 놀아야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가 쉽게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집 안에서 아동이 게임과 TV시청을 통해 휴식시간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동이 방과후에는 마음껏 뛰어놀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즉,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보호자가 있는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고 이처럼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또 다른 형태의 방과후 활동과 방과후 체육 활동을 이용하기도 된다.

셋째, 취업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느끼는 방과후 시간은 직장에 있는 보호자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서' 자녀를 방과후 사교육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기존의 연구(오아림.유계숙, 2012)와 일치하며 취업모의 경우 학습의 목적과 더불어 보호자의 부재에 대한 걱정으로 자녀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교육을 이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는 가정에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녀의 방과후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학습적인 면을 고려

하여, 방과후 자녀를 사교육에 보내고 있다. 이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직장에 있는 엄마가 퇴근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발달특성상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조영희, 2006). 그러한 이유들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동안 자녀의 방과후 시간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학원을 선택하기도 한다.

넷째, 자녀의 방과후 시간의 의미는 현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혼란과 갈등의 시간이다. 자녀의 방과후 시간을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보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부모들은 자녀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한다. 이는 사교육을 시키면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데 유리할 것이며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을 보충할 수 있으며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다(서춘래, 2003).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인 성취 압력은 사교육에 영향을 준다(김진선.진영자, 2010). 따라서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는 사교육으로 반영되어 아동의 방과후 사교육의 시간으로 이어지지만, 부모들은 내적으로 초등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시간을 사교육으로 보내어야하는 지에 대해 갈등하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들은 부모 입장에서 갈등과 혼란의 시간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교육 이용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방과후 시간의 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이용은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의미가 가장 컸으며 이는 오늘날의 입시제도 및 정책과 관련이 있다. 학습의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지만 이는 단순한 학습의 보충을 넘어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까하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런 우려와 염려로 방과후 사교육을 이용하지만 부모는 동시에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학교에서 돌아와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만...'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방과후 시간동안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위의 갈등과 더불어 부모의 퇴근시간이 사교육 기관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자녀를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생각하는 방과후 시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특정 도시의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시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아동을 직접 면담하여서 부모가 생각하는 방과후 시간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아동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는 더욱 다양한 지

역의 많은 학부모와 대상 아동을 직접 면담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미나 (2007). 영어사교육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영심 (2005).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실태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1**, 125-141.

김경화, 서영숙 (2010).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선택주체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보육학회, 10**(2), 167-185.

김영재, 김효주, 차은주 (2015).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관여에 따른 인성과 공감과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 21**(1), 33-45.

김지희 (2012). 아동의 생활시간과 놀이시간 양태연구: 방과후 보호자 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 50**(8), 13-19.

김진선, 진영자 (2010). 사교육 경험 및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교육연구, 7**(2), 5-22.

김 호, 김재철 (2012). 방과후 학교 참여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의 매개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172-199.

남미숙 (2010).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글로벌영어교육학회, 15**(2), 80-107.

문윤제 (2008). 방과후 스포츠 활동 참여와 비참여 초등학교 학생의 체력 및 인성 비교. **한국 체육교육학회, 13**(1), 157-167.

박창환 (2008). 초등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가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영숙 (2007).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미.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세미나 자료집.

서춘래 (2003).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교육종합연구. vol1**. 47-65.

양애경, 조호제, 노신민 (2008).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 2**(2).

오만석 (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4), 299-330.

오아림, 유계숙 (2012).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키는 취업모의 동기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오지수 (2007).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혁 (2012). 중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리 (200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중재 효과. **아동학회지, 22**(4), 167-188.

정 송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시간 활용 실태 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1), 53-72.

조건상, 최영준 (2016).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초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477-487.

조영희 (2006). 청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보육여성 분야.

천희영 (2014).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 가정환경과 자기조절 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265-289.

한정규. 허원석 (2013).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63-75.

Fuligni, Andrew J. and Stevenson Harold W. (1995).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3), 830-842.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2007), EBS 지식채널e.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177924

ABSTRACT

The meaning of after school time

Shin Ho Jeong

The following stuty is focuses on the meaning of time student's after school. Through this proc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find the meaning of time whose child is elementary school student. For this, 4 mothers whose child attend in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 subject's journal, the researcher's reflections, individual interviews, and team interviews were used to collect data for the study. Research has shown that most children use their after school time as a studying time in their English academies. They don't have time to play with their friends and even they are free, their friends go their own academy. So they played by themselves with playing games or reading a comic books. Theis parents feel confused when they send theis children to academy after school but they think there're no ways to do well in this educational system. However, If children's mothers have a job, their children also go academy not because of studying but of safety care. Most mother who get a job worry about their children's safety during their work. Children's after school time is mostly use in academy because of current educational system .It's not easy for them to play together because of theie own schedule. Theis parents also worry and feel confused about it but they have to use their children's time for another studying.

Key words : after school, meaning, time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2, 45-67.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분석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김 진 숙** 서 혜 전***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장 1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먼저, 초등돌봄교실 확대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새로 유입되는 아동이 적어지거나 이용아동이 초등돌봄교실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방과후돌봄을 선택하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동들이 이중적으로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협력한다면 부처의 예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으로 더 우수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학년별, 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할 분담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적인 차원에서 비경제적이고,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에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과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협력과 역할, 지역아동센터

· 논문접수: 2016. 10. 30 / 수정본접수: 2016. 12. 12 / 게재승인: 2016. 12. 15
* 이 논문은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일부 수정함.
** 대구한의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조교수, 주저자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child@dhu.ac.kr)

Ⅰ. 서 론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아동 돌봄 또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방과후돌봄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통칭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방과후돌봄서비스란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시간 이후 일상생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욕구를 보완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취업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방과후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제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우리나라 방과후돌봄은 방과후 기관의 질 확보, 사각지대 아동의 발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무상지원의 증가, 방과후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초등돌봄교실 관련 법제화와 자격 등 현재 여러 과제와 이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로서 가장 우선되는 이슈는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는 방과후 기관들과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런 쟁점들은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담당하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아동,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에 있어 서비스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런 중복 문제 때문에 방과후돌봄 공공서비스들이 통합되어야 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조영희, 2014).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 '방과후 통합'이라는 국가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통합'보다는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연계, 협력'의 의미로 전환되었고, 부처별로 다른 방과후돌봄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에 적합한 방과후 연계 및 협력의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2014년 지역돌봄운영계획 수립・운영 방안이 4개 관계부처합동(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으로 마련되어 발표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적합한 방과후 연계 및 협력 모델 마련을 위해 지자체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여현진, 2014)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부처가 다르고 각 방과후 돌봄 서비스들의 역사와 출발 배경이 다르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공단지역과 빈민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빈민・노동운동과 관련된 민간이 주도하여 이뤄졌던 '공부방'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공부방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다 방임 및 빈공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기존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시켜 제도권의 공공서비스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방과후돌봄서비스로, 시범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5년이나 2004년을 기점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저출산과 맞물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활용을 목적으로 학교안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권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이후 초등보육프로그램으로, 현재에는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됨), 수준별 보충학습을 '방과후 학교'로 통합하게 되면서 확대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과후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안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서 학교안에서의 방과후돌봄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방과후돌봄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가 정책 사업 과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각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가 중복 및 누락되어 효과적인 전달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개선 보완과 더불어 서비스 상호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천적인 논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방과후돌봄 협력의 모델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구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문제파악 및 그 해결책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으므로(신경림 외, 2004) 본 연구목적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포커스 그룹의 참여자 모집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참여자로 구성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참여자의 구성은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목적 표집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심층면담 연구참여자의 정보

번호	시설장	성별	연령	소재구	경력
1	A 지역아동센터	여	만 37세	달성군	약 4년
2	B 지역아동센터	여	만 63세	달성군	약 11년
3	C 지역아동센터	여	만 55세	수성구	약 10년
4	D 지역아동센터	남	만 55세	수성구	약 8년
5	E 지역아동센터	여	만 46세	중구	약 10년
6	F 지역아동센터	여	만 50세	중구	약 4년
7	G 지역아동센터	여	만 47세	동구	약 6년
8	H 지역아동센터	남	만 39세	동구	약 6년
9	I 지역아동센터	여	만 48세	달서구	약 10년
10	J 지역아동센터	여	만 56세	달서구	약 6년
11	K 지역아동센터	남	만 49세	북구	약 6년
12	L 지역아동센터	여	만 48세	북구	약 9년
13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남	만 50세	남구	약 10년

대구시에는 8개의 구가 있어 각 구별로 시설장 2명씩 선별적인 표집을 하였으나, 당일 인터뷰 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석하였다. 따라서 <표 Ⅱ-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12명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1명, 총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제안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초기 단계이므로 본 연구 대상의 공통점은 가장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소 현장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선별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인터뷰 질문 내용 구성을 위해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따라서 질문 내용은 <표 Ⅱ-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Ⅱ-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구성

단계	내 용
시작	-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변화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환 및 핵심	- 우리나라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협력과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3회로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1회 소요시간은 약 120분~180분 정도였다. 포커스 그룹 토론의 진행은 공동연구자들이 제시한 질문 목록에 따라 진행하였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이 모두 도착할 때에 간단한 음료와 담소를 나누어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 협조 관련 동의서」를 받고 녹음을 허락받아 토론하는 동안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들은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후에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한 항목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분의 시설장에게는 메일과 전화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Ⅱ-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질문 목록을 작성해 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구조화된 면담과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되는 대화로써의 면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진행시,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를 하고 면담 후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자료 분석은 면담 과정에서 녹음 자료의 전사본과 연구자와 보조자의 현장노트의 기록을 토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록된 자료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Strauss & Corbin(1990)의 개방코딩을 통해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은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하고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자료에 반영된 현상들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함으로써 이해, 해석,

요약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방법이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김수지, 신경림, 1996, 신경림 외, 2004). 현장노트, 녹취록을 정리 및 분석하고 결과를 참여자로부터 메일과 전화로 확인을 받았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질문은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은 무엇인가?”였다. 분석결과,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변화의 하위범주 5개 개념,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에서 7개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분류 및 분석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결과

범주	개념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겪는 변화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감소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미지 낙인 - 지역아동센터에 늦은 입실 - 아동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권 - 이중적으로 힘든 아동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	- 개별 맞춤형 지도부처간의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아동센터의 강점 및 협력 강화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상호보완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역할	- 학년별에 따른 역할분담 - 시간대별에 따른 역할 - 분담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할분담 - 학교 저녁 돌봄은 비경제적 - 프로그램 향상 및 통합안 - 개별 맞춤형 지도 - 부처간의 연계 협력 강화

1.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겪는 변화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이 변화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감소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감소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1, 2학년들이 감소되어 지역아동센터에는 신규 아동이 많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저학년이 없으며, 대기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난 뒤부터는 지역아동센타의 이용 아동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신규 아동 유입이 많았는데…. 자연적으로 감소했어요.
>
> (G 지역아동센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생 6학년만 17명이었기에 중학교 고등학생이 많아진 반면에 지금은 센터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
> (D 지역아동센터)

> 돌봄 교실이 있으니까 1, 2학년들이 우리한테 유입되어야 되는데 학교로 다 이용하지요.
>
> (C 지역아동센터)

> 초등 돌봄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신규 아동이 줄어들고 또 중고등학생을 진학관계로 빠진 아이들의 자연감소 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1, 2학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
> (I 지역아동센터)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미지 낙인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미지의 낙인감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부터가 아니라, 예전보다 낙인감이 더 심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1984년 상계동의 '산돌공부방'이 설립 및 운영되었으며, 이후 1995년까지 전국적으로 빈민지역,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공부방의 양적 확산기인 1997년 IMF 금융위기로 결식아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급식 사업을 공부방이 주도하였다.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나,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이 확대되면서 더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만 이용하는 이미지로 낙인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교로 가면 간식비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낙인감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이 10%도 없거든요. 무조건 공짜다 이래 생각하니까 사실은 의료보험료 15만원내고도 만약에 기타승인으로 예를 들어, 맞벌이의 자녀가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동도 돈을 안 받으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못사는 애들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낙인감이 더 심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
> (G 지역아동센터)

> 이용 아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문의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만 이용하는 낙인감이 옛날보다 조금 더 심화되었어요.
>
> (H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일반아동이고 수급자고 돈을 10원도 안 내도록 하니까, 못사는 아이들로 이렇게 낙인감이 찍히잖아요.
>
> (I 지역아동센터)

3) 지역아동센터에 늦은 입실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입

실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2시에 입실하던 아동들이 빨리 도착을 하여도 4시 반이나 5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입실하는 시간조차 정확하지 않으므로 인해 예전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없거나 진행시간이 지연됨과 동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학교에서 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센터에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2시만 오던 아이들이 지금은 5시 아무리 빨리 와도 4시반 정도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진행이 지금 안 되는 상태구요.
>
> (E 지역아동센터)

> 센터에 오는 시간이 현저히 늦어진 것은 맞아요. 오후 돌봄까지 하면 3시가 된데요. 주로 1, 2학년은 오후 돌봄까지 하고 센터 도착해요. 그러다보니 앞으로는 이제 야간사업만 해야 될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 때가 있어요.
>
> (H 지역아동센터)

>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보니,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도 못하고 진행도 늦춰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
> (B 지역아동센터)

4) 아동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권

먼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들은 방과후의 교실을 선택하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원하는 기관보다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에 아동들은 맡겨지게 된다.

인터뷰에서 아동들은 학교의 방과후 교실보다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원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들이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이나 교사의 전문성 등 대체적으로 부모는 학교가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담임교사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우선 부모님들 일단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호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운영을 해야 하

니깐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거죠.

(H 지역아동센터)

솔직히 말해 학교에서도 사업을 열어놓았으니 그에 따른 인원도 채워야 하니 부모들에게 약간의 강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F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선생님 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가라해요”. 그럼 어떤 날은 더러더러 가기 싫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가 센터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 왔습니까? 학교 수업에 안 갔다고 하는데” 라고….

그럼 우리가 “빨리 학교에 갔다 와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K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나 갈래요” 라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우선적으로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그게 좀 더 심화되는 거 같아요. 작년보다 더 심화되는….

(J 지역아동센터)

지금 초등 돌봄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희생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학교의 공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애를 학교로 보내라’ 하면서 학교에서는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도 엄마들은 학교를 선택해요.

(B 지역아동센터)

5) 이중적으로 힘든 아동들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누구보다 아동들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교실로 이동 후에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후, 그 다음은 바로 집으로 귀가가 아니라 또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이중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니 아동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제 시간에 입실하기가 싫음이 나타났다. 이는 오히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방과후 기관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아이들은 돌봄이든, 방과후든 벌써 거기서 지쳤기 때문에 센터로 바로 안 와요. 어디 베베 놀다가 어디 숨어서 좀 놀다가 오지. 왜냐하면 센터 와서도 프로그램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시까지나 3시까지 하고 난 후에 숨어 있다가 온다니까요.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
> (E 지역아동센터)

> 우리 센터에는 조손가정 아동인데 학교 돌봄하고 4시에 오면 또 센터에서 7시나 8시까지 있다가 할머니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만 힘들어요.
>
> (B 지역아동센터)

> 학교에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7시나 8시까지 있는 것은 진짜 아이들에게 지옥이나 감옥이나 진배없거든요. 3시에 수업이 끝나도 베베 돌다가 센터에 5시에 온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
> (I 지역아동센터)

2.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

1) 개별 맞춤형 지도부처간의 연계 협력 강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협력 및 연계한다면 부처의 예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으로 더 우수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기관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 운영관리 서비스를 보충 지원하고 다양한 역할을 협력할 수 있다면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처가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정책 및 집행에 따른 사항들은 그들 기관 및 센터의 목적과 활동 있어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모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정보다도 보호가 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보다도 아이들의 심령관리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그 역할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
> (D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의 연계는 프로그램도 괜찮고 시간대별도 괜찮고 학년별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지금 나서는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온 마을이 나설 수 있는 게 학교만이 마을이 아니라는 거죠.

(E 지역아동센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력을 하는데 예산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니까 아이들 보호중심으로 할 수 있는 고유기능은 살리고, 학교에 연계를 하면서 정말 오후 돌봄에 5시까지 학교에서 하는 것이죠.

(I 지역아동센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의 방과후 강사분과 센터의 강사분이 같으세요. 그럼 중복으로 강사료가 드니, 정규수업 마치고 방과후와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되면 좋겠어요.

(I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 선생님과 협력만 될 수가 있다면 그 비용으로 얼마든지 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요.

(K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적인 측면이 강하고, 학교는 부분적으로는 보호이고 가장 큰 역할은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에서의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고유영역이니까 정규수업으로 하고 역할 부분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C 지역아동센터)

2) 지역아동센터의 강점 및 협력 강화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나 학원과 달리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현장이 아니라, 소규모의 학습현장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세심한 영역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정과의 가까운 교류를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아동의 반응에 따라 교사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이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통합적,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학교보다 훨씬 더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각각의 위치에서 강점을 부각하고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은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정서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을 모두 지원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장단점을 다 알아요.
>
> (G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원장님들이 다들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호적인 측면과 다르게 노력하고 있어요.
>
> (A 지역아동센터)

>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림이 필요해요.
>
> (F 지역아동센터)

> 저희 구는 권역별로 돌봄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센터하고 학교하고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권역별로 회의를 해보니까. 학교와 센터장들이 이제 함께 교류가 되잖아요. 교류가 되니, 한명의 아이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공유가 되요. 예를 들어, 건강산태, 심리상태 등을 공유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
> (I 지역아동센터)

3)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상호보완

인터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과 보완의 요구가 나타났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방과후 보육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보완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도 아이들을 일찍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 이유는 가정에서 아이 돌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 돌아가면 더 안쓰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학교 측에서는 마치고 난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K 지역아동센터)

정말 맞벌이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해 방과후가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H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할 때 이제 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한두 명인데 이걸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럼 차량운행을 하는 데 거점형을 만들 것이냐 봉사자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가 주고 받았어요. 그것 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을 함 찾아보자는 논의가 있어요.

(I 지역아동센터)

지금 3,4학년 확대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지역학교 밖의 공공서비스기관과 협력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권역별 묶어가 서로 협의해서 학교 밖과 협력이 필요해요.

(J 지역아동센터)

3.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역할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만약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년별에 따른 역할분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학년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이든, 초등돌봄교실이든 어느 기관에서 다양한 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형제애 및 우정애를 느끼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였다. 오늘날 핵가족화 및 현대사회에서 특히 형제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경쟁과 타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시사한다.

센터의 큰 장점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애들이 같이 어울리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개별사회로 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센터에서 여러 학년이 같이 생활함은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D 지역아동센터)

오늘날 핵가족화 시대에 센터의 아이들의 협동과 형제애를 느낍니다. 보통 5, 6년씩 다니고 거의 3, 4년은 기본으로 다니는데 센터의 아이들끼리 형제이며, 학교가면 자기들끼리 협력한다고 해요.

(H 지역아동센터)

한 예로, 센터의 한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까지 좋아하고 힘도 생기고 협력도 생기고 협동심도 생기고 해서 학년별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로 이 체제가 좋겠습니다.

(K 지역아동센터)

2) 시간대별에 따른 역할분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시간대별의 역할분담에 대한 시설장들의 의견은 아동을 위하는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아동이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바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야간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학교 정규 수업이 마치면 바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및 교육을 받도록 함이다. 즉, 시간대로별 역할분담은 한다면 아동이 귀가 시간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또는 지역아동센터 둘 중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 중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A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정규과정이 마침과 동시에 더 늦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와서 방과후 수업과 야간보호가 동시에 병행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협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D 지역아동센터)

부모들은 학교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은 5시이니 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싶어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하에 시간대별로 연계하면 좋겠어요.

(C 지역아동센터)

3) 분담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할분담

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할분담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의 개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낙인감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역아동센터에 개별지도 및 사례관리와 초등돌봄교실에서 일반아동을 역할분담으로 하더라도 아동들이 낙인감이 너무 심합니다.

(J 지역아동센터)

시설 특성별로 역할을 분담 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오는데 그러면 진짜 좀 전에 00센터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는 힘들고 못살고 진짜 없는 애들만 가는 낙인감이 더 심화되거든요.

(G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아동들의 사례관리를 우리가 감당하려니까 부담이 너무나 크고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으로는 힘들어요.

(H 지역아동센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역할분담의 단점으로는 낙인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H 지역아동센터)

4) 학교 저녁 돌봄은 비경제적

아직까지 학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적인 차원에서 비경제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은 소수의 아동을 위해서 학교 전체적인 정비시설이나 차량 운행은 낭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보다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아동의 귀가 지도에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학교에서 저녁 돌봄을 억지로 개설하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7시까지거든요. 기본 운영 시간이 12시부터 7시까지는 기본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몇 명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학교 전체시설을 돌리는 건 비경제적입니다.

(D 지역아동센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지금 전용차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이 있기에 센터가 아이들 귀가 지도에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이지요.

(A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의 사례를 들면, 학교에서 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끝에 보니까 한 두 명만 8시정도까지 늦게 남아 있는데, 그 큰 학교 시설을 불을 다 켜놓고 경비 체제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귀가 지도가 훨씬 학교보다는 더 안전하게 귀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K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방과후도 사실 이중지원이예요.

(K 지역아동센터)

5) 프로그램 향상 및 통합안

방과후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에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어 및 수학 같은 학습 측면의 프로그램보다는 아동들의 흥미 위주와 잠재력, 그리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향상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향상에서는 방과후 기관의 시설장의 교육 마인드와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가 많이 좌우되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가 지역아동센터에 반영되어 숙제지도와 보충학습 지도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과후 기관의 프로그램은 문화와 체험위주의 활동인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색함을 시사한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애들한테 큰 도움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시키면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C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학습보다는 아이들 취미활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재능개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F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흥미 위주로 예·체능쪽으로 하고 싶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부모님들의 마음은 학습이고 공부를 더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F 지역아동센터)

이상적인 프로그램은 실제로 축구도 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학습을 위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H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학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이들 오후에 정말 우리가 케어해주고 정말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이 필요를 그냥 채워주고 그 정도지, 부모님이 공부는 안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A 지역아동센터)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정말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하고, 요일을 정해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치유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부 아주 넌덜머리난다고 그래요.

(E 지역아동센터)

솔직히 말하면 센터가 학원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차라리 그렇게 학원수준이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F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이 학습하고 같이 치유가 되어 저희는 보드게임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해보니 아이들 집중도도 높아지고 공부하기 싶은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어요.

(H 지역아동센터)

6) 개별 맞춤형 지도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에 관련하여 실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놀이지도, 자율학습, 숙제지도,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도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지도가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아이들은 개성별로 특징이 있을 껍니다. 악기도 있을 거고 또 대다수 공부 못 하는 거는 사실이고 안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전제 조건하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5대 프로그램 속에서 아동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K 지역아동센터)

학교는 정규수업과 부모의 사교육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과 담당하고, 센터는 저희들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별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F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과는 달리 아이들의 인성과 함께 그 수준별로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지요.

(I 지역아동센터)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교실 확대 이후,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새로 유입되는 아동이 적어지거나 이용 아동이 초등돌봄교실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1, 2학년들이 감소되어 지역아동센터에는 신규 아동이 많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미지의 낙인감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과 유입을

꺼리게 하고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과후돌봄 공공서비스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대응 정책 방향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과후돌봄을 선택하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원하는 기관보다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에 아동들은 맡겨지게 된다. 학부모의 욕구를 사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방과후돌봄서비스 선택에 있어 아동의 의견과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학교내에서의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이 확대되면서 누구보다 아동들이 이중적으로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교실로 이동 후에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후, 그 다음은 바로 집으로 귀가가 아니라 또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니 아동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제 시간에 입실하기가 싫음이 나타났다. 이는 오히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과후 기관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협력 및 연계한다면 부처의 예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으로 더 우수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기관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 운영관리 서비스를 보충 지원하고 다양한 역할을 협력할 수 있다면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처가 방과후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정책 및 집행에 따른 사항들은 그들 기관 및 센터의 목적과 활동 있어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즉,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방과후돌봄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보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역할 분담을 한다면, 학년별, 시간대별, 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학년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이든, 초등돌봄교실이든 어느 기관에서 다양한 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형제애 및 우정애를 느끼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핵가족화 및 현대사회에서 특히 형제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경쟁과 타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시간대별의 역할 분담은 아동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아동이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바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야간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학교 정규 수업이 마치면 바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및 교육을 받도록 함이다. 즉, 아동이 귀가 시간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또는 지역아동센터 둘 중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시설 특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할 분담은 아동의 개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낙인감이 더욱 심해지므로 부정적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적인 차원에서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에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과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지도를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김재인, 이향란, 2004). 평생교육적 차원의 활동이란 학교에서의 교과를 벗어난 휴식과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문화활동, 체험위주의 자연활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때문에 스웨덴의 학교 밖 방과후돌봄 기관은 우리나라처럼 등록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아동이 이용할 수도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아동들 중에 하루 또는 며칠 동안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등록자 신분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아동의 주거지에 가장 근접하여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스웨덴의 경우처럼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시간이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이 수를 줄여가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과후돌봄서비스가 3개 부처로 각자의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합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통합 부분을 찾는다면, 방과후돌봄의 공공서비스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강사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운영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도도부현에서는 방과후 기관들 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방과후 아동지도자 연수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서영숙 외, 2006).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방과후돌봄 종사자의 연수도 통합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방과후 교육 시설의 유형은 다양하나 전담부서가 교육과 학부로 통일되어 있으며, 민간 방과후 시설도 공립 방과후 시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통해 관리 감독하여(조미숙, 2006) 방과후돌봄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처럼 미국도 교육부가, 독일과 일본은 복지부가 전담부서로 되어 있다(김재인, 이향란, 2004). 방과후돌봄을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느야에 따라 전담부서가 다르기는 하나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방과후돌봄에 대한 전담부서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방과후돌봄에 대한 중장기적 방

향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종합하면, 우리나라 방과후돌봄서비스 각각의 정체성과 강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도입 배경, 역사, 운영철학, 서비스 유형 등을 토대로 각각의 정체성을 찾고 타 서비스에 대해 강점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립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과 역할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김수지, 신경림 (1996).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김재인, 이향란 (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서영숙, 이향란, 신지현, 이지항, 김진숙, 한현지, 장혜영, 오유정 (2006).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서울: 서울복지재단.

신경림, 장연집, 김영경, 이금재, 최경민, 김혜영, 김옥현, 김영혜 (2004). **질적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서울: 현문사.

여현진 (2014). 방과후 체계간 협력 모델의 실태. **2014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3-54.

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181-203.

조미숙 (2006). 방과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교육문화연구, 12,** 33-74.

조영희 (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한국여성개발원 (1994).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Cooperation and Role Analysis among After-School Care Services - Focusing on Community Child Center -

Kim, Jin-Sook · Suh, Hye-Jeon

This study has objective to identify the roles and cooperation between after-school care services after hearing stories from the sites focusing on community child centers. To this end, 13 heads of community child centers with over 3-year experience on the sites were selected for the targets of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focus group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fter extending Elementary Care Class, the number of children who participate to community child centers get smaller. Or children who use the service move to Elementary Care Class, which is new change.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decide after-school care lies definitely to their parents. We could find that children are double harder. Second, if the roles of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 are integrated, the budget cost of the department can be reduced. With the saved cost, more excellent instructors and programs will be able to be executed, which is revealed. Third, the workers concerned in community child center showed negative thought about assigning roles depending on grades, the features of facilities, and the roles of their parents' socio-economic level. In addition, it is not economic that the school executes after-school care service till late at night in terms of national budget. It was suggested that the programs doubled in community child center and elementary care class require of private guidance considering program integra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of children.

Key words :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lementary Care Class, Youth After-school Academy, Cooperation and Role, Community Child Center